

# 住宅을 위한 断想

金正澈 / 주·정림건축

금자리로서의 역할을 다 할 때 그 사회는 밝고 명량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소음과 대기오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현대인의 생활을 괴롭게 만들지만 육체적·정신적인 휴식처로서의 주택이 이를 극복케 한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물리적으로는 최소 규모의 건물이지만 중요성에서는 어느 건물이 이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극한기와 혹서기의 기후에서 보호되고 육체적·정신적 휴식공간으로서의 주택의 의미는 변질될 수 없는 것이다. 급속히 이루어진 경제성장으로 물질적 풍요를 이루게 되고 세대가 바뀌면서 도덕적 가치관마저 변천되어 가고 있는 듯 하지만 주택의 본질은 영원히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더 넓고 더 편안한 집은 모두의 소망이지만, 그 소망은 단지 물리적인 소망일 뿐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 ■ 바람직스럽지 못한 住宅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집들이 시간을 다투어 지어지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住宅의 量産을 요하게 되고 복부인어 투기네 하는 새로운 용어를 탄생시키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상흔은 불량주택까지 양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획일적인 콘크리트 평지붕으로 도시의 시각적 환경을 황폐화 시키더니 난데없이 불란서 스타일이라는 족보 불명의 지붕이 집장사와 수요자의 野습으로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만연되어 눈시울을 찌프리게 하는 현상이 계속됨을 건축계는 개탄만 해서 될 것인가.

지하실은 물탱크로 변하고 지붕과 벽은 빗물이 새어 주택 내부가 온통 곰팡이로 뒤덮인 연립주택에 관한 기사가 가끔 신문지상에 오르 내린다.

겉만 번드레한 주택, 유행을 만들고 유행을 따르는 주택, 수도가 언제 터질지 모르고 규격 미달의 전선을 겁없이 사용한 주택이 산재해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개선되지 않은 채 지어지고 있다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와우아파트 참사와 대연각 화재는 남의 나라에서 생긴 일이 아니다.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연탄가스 중독으로 우리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곳이 住宅에서라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다.

## ■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단란과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것이 모여서 조화롭게 형성된 마을로 변해가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동시에 느끼기에 슬퍼지는 것이다.

現行制度下에서는 주택 신축시 건축사의 설계와 감리를 法制化하고 있음에도 이상과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는 것은 건축행정만 해결될 뿐 건축사不在의 시대인 것 같이 느껴진다. 그렇다고 현재의 주택문제가 전적으로 건축사에게만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사회적인 여건이, 땅과 주택에 대한 한국인 고유의 소유욕이, 주택을 사회적 지위의 표현수단으로 생각하는 일부 사고방식이, 匠人精神이 결여된 시공자의 의식이, 돈만 벌겠다는 건축자재 생산업체의 무책임과 근시안적인 주택정책이 주택문제를 어려운 국면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흙과 짚·나무만으로 백여년을 지낼 수 있는 주택을 만들었던 지혜를 갖고 있었다. 고도로 발달된 물질문명의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선조들의 지혜를 전수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흙벽과 초가 지붕으로도 혹한과 혹서를 막을 수 있었고 초롱불 밑에서도 가정의 단란과 휴식을 찾을 수 있었는데, 더 크고 좋게

## ■ 住宅은 生活을 담는 그릇

住宅이 他建物과 다른 점이 있다면 주택의 규모나 형태에 무관하게 가정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백화점·극장·음식점 등의 건물은 이용자의 기호나 생활수준에 따라서 선택·이용되는 건물이지만, 주택은 국민 누구에게든 이용되어 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갖게 되며 지어진지 10여년만에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철거되지 않는 한 건물 수명만큼 존속하여 국민의 住生活에 기여되는 것이다.

일생 중 가장 많은 시간을 住宅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만은 아니지만 사회의 基本單位로서의 가정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보

짓는다는 현대주택은 주택 본질보다는 물리적인 크기만 늘려놓은 결과는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규모의 차이는 불가피하겠지만 서울시의 경우 주택 공급율이 60% 전후이며 그 중 세계가족단체협회 기준인 1인당 16㎡에 미달하는 7평 미만인 주택이 6천 6백여채와 된다고 하니 건축사들의 관심이 서민주택에 돌려져야 함도 당연한 것 같다.

규모야 크던 작던 생활의 쾌적함을 돌우고 가사노동을 줄이며 가족본위의 생활을 추구하는 주택의 본질을 해결하고, 아름답고 자랑스런 마을과 도시를 형성해야 하는 책임과 보람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건축사가 많을수록 주택에서 느끼는 슬픔은 감소되어 나갈 것이다. 또한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깃든 주택의 설계와 시공을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것이다.

### ■ 住宅設計의 어려움

주택설계는 건축설계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작업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용도는 고사하고 몇천평의 건물의 기능과 요소를 수십평의 작고 알뜰한 공간으로 만들고 그 속에서 윤택한 생활이 영위되도록 구상이 되고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치의 면적을 아껴 저렴하게 지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남녀노소의 성별과 세대차등 부부와 자식들 모두가 건축주이며 각양각색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 그리고 돈을 적게 들이며 문화적으로는 최고로 해 줄 것을 부탁한다.

구상은 오래하고 여러면으로 검토해도 시간이 부족하며 규모에 대해 작업량은 많고 끝없는 일이 된다. 그래서 어떤 건축가는 “많은 설계를 했어도 주택설계는 아직 해볼 엄두를 못낸다”고 한 말을 상기해 본다.

그만큼 어려운건 사실이나 귀찮고

까다롭다고 외면만 하면 생활의 지혜가 담긴 주택의 창출과 연출은 커녕 꼴불견의 주택만 남게 된다. 또한 생활의 본질도 찾지 못한 집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작고 어려우나 건축사 모두가 나름대로 참여하고 성을 다해 설계 및 건축에 관계해야 한다.

### ■ 住宅設計의 바람직한 方向

住居란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인간 생활을 꾸려 나가는 공간 또는 場을 말한다. 또 그것은 어떤 특정한 환경의 場으로서 自然天候의 조건을 극복하여 생명을 보호 유지하고 개인적·가정적·사회적 생활을 담는 시설이 된다.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여 조화를 찾으며 인간생활의 문화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발전에 부수한 미래지향적 생활과학이 추구되어야 한다.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며 으리으리한 집이라 해도 삶의 즐거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外華內貧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집, 환경에 잘 어울리는 집으로 볼 수 없다.

집은 남에게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한 것도, 또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도 아닌 가족이 다같이 애착을 느낄 수 있는 자랑스러운 공간과 분위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 개인이 자기 프라이버시와 생활이 흡족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생활의 행위로 볼 때 인간의 24시간 활동이 생리적으로는 노동(Labour)·휴양(Recreation)·여가(Leisure Time)로 구성되는 것과 같이 가정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피로회복의 공간 또는 場이 되어야 한다.

둘째, 인간성을 중히하고 육성하는 문화적·사회적 생활의 場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생리적 휴양에 그치지 않고 독서·음악·종교·교제·단락·오락·스포츠·취미 등의 교양을 높이고 인생을 풍부하게 하도록 희망

한다. 또한 德性을 닦으며 個性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문화적·사회적 생활을 의도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에 적합한 시설이나 설비가 필요하게 된다.

셋째로는 생리적 생활이나 문화적 생활을 위한 시설이 갖춰지고 영양·휴양·보건·교육·교양·오락 등의 소비생활이나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을 요하게 된다.

이것은 Home Making, 가정의 관리나 경영으로 주부의 노동에 해당되며 가정을 원만하게 운영하게 하는 역할과 책임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능률적으로 일하는 장소로서의 구조나 시설이 중요하게 된다.

근자에 이런 말을 흔히 듣는다. 주택의 설계·시공 또는 매매에 있어서 가장의 역할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고 사실상 매매행위는 주부의 결정권에 속하기 때문에 집장사들은 안방·욕실·주방 등, 여성의 기호나 환심에 주의를 기울여 만들어야만 집이 비싸게 잘 팔린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발전과 경제·문화생활의 수준향상으로 앞으로의 가정 생활은 가족 모두가 생활공동체의 한사람으로 그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생활을 영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현대는 가족평등의 입장에서 서로가 협력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여 애정으로 결속·단락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은 커녕 감안도 안된 집들이 우리의 아름답던 강산과 川邊에 마구 세워지고 있으니, 장기적인 대처와 처방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전문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리라.

### ■ 아름다운 良質의 住宅

규모나 공간 그리고 재료사용에 있어서 과욕을 낸 집을 우리는 흔히 접하게 된다. 이러한 주택은 세련되고 조화와 모양을 만들기 이전에, 다만 사회적 富의 과시로서 그칠 것은 명

약관화한 일이다.

사면에 벽을 둘러치고 지붕을 씌우면 형태가 생기고, 벽면에 창을 위한 개구부를 달고 외장을 구사하여 개성 있는 표정을 주게되면 주택이 된다. 그럼으로써 주위와 조화 관계가 성립되며 동리라는 주거환경이 만들어진다.

대지여건과 주변지역의 여건 그리고 건축주의 희망사항 등을 토대로 만들어진 주택이 목적의식 없이 유행을 따라 안목 없는 표현에 그쳤다면 이는 건축주·건축사 모두의 책임이 된다. 건축주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주거생활에 대한 요구 또는 희망이 합리적일 수도 있으나 잘못된 견해일 경우도 많다. 앞으로의 삶의 방향에 대하여 프로답게 제시하고 해결하여 이에 필요한 요소들을 건축적으로 조형화함으로써 아름답고 아담한 집과 환경을 만들어야 할 역할이 우리 건축사들에게 있다.

돌이 깨어져 건축체가 되었을 때는 이미 無機質化가 되어 있으나 석재의 디자인과 구사 여하로 돌이 살아 숨쉬는 것 같이 될 수도 있고 죽어 있는 돌로써 그냥 있을 수도 있다.

용마루의 단면을 이상하게 꾸부러 불란서식 집이라고 일반 주민을 현혹하거나 재료의 특성과 색·질감 등의 이해없이 남용한 예들을 하루속히 개선하여 시각적인 면에서도 수준높은 우리의 동리 주거환경을 만들어야겠다.

### ■ 취락개조주택의 허점

고속도로나 지방도로를 따라 여행을 하다 보면 길에 면하여 일정하게 구획한 대지 위에 천편일률적인 모양을 한 집들이 세워진 요즈음의 농촌주택들과 만나게 된다.

바둑판을 보듯 네모지게 자른 반듯 반듯한 직선도로에 向과는 관계 없다는 듯이 도열해 앉아 있는 취락에서 도시적인 냄새는 풍기지만, 농꾼들이 일손을 멈추고 이마에 흘린 땀을 팔

꿈치로 훔치며 앉아 쉴 수 있는 여백이 결여되어 흙냄새와 같은 구수한 맛이 없음이 항상 안스럽다.

이런 주택들이 확 트인 들판에 옹졸 옹졸 뭉쳐 있어 농촌풍경과 경관을 망쳐 놓고 있다.

필요없이 높아진 지붕 속 공간은 농민들에게 무거운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결여되었지만 행정우위의 획일적인 생각과 전시효과적 추구의 결과물이 아닌가 싶다.

### ■ 住宅供給機關의 專門化

앞에서 언급했듯이 住宅設計의 어려움은 건축사 스스로가 자기 집을 설계하고 감리하여도 불만스러운 곳이 있게 마련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주택설계는 주택문제 전담기관에서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연구 개발함으로써 계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택설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사나 사무소가 있기는 하나 아직 그 조직이 경험하고 축적한 노우하우나 팀의 종합적 역량이 부족하여 문제를 계속적으로 남기게 마련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은 근래에 와서 官主導型보다 민간기업 또는 집장사에 의하여 그 과반수 이상이 제공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영세 집장사들의 횡포는 아슬아슬할 정도의 극히 심한 문제들을 노증시키고 改惡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인간의 생활에 대한 배려는 고사하고라도 기술적 수준이나 시공상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은채 수익에만 눈이 먼 그들의 안목에 의하여 지어 졌음으로 슬럼化를 초래하고 그 추악함을 도처에 확산시켜 왔다.

새로 지었다는 집들을 머지않아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할 때 사회적·국가적 손실은 막대한 것이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良質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여 저질의 집장사 집을

추방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구(주택공사나 민간전문주택공사)를 육성하는 장기적 대책의 立案運營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활에 맞고 이웃과의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멋진 공간과 기능, 값싸고 좋은 재료를 구사하여 완벽하고 질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을 하루속히 강구하여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량공급이 시급한 문제라고 본다.

### ■ 자기 분수에 알맞는 住宅

주택은 그 집을 사용할 식구, 즉 가족들의 생활을 담는 공간과 場이라는 것은 누차 말한 바 있다.

그 공간은 안전하고 포근하여 건강한 생활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라야 한다. 대체적으로 우리들 주거의 면적기준은 구라파나 이웃 일본에 비해 과대한 편이다.

용도도 애매하고 사용 빈도도 적은 방을 예비하는 경우는 주부나 가족들의 가사노동만 늘릴뿐만 아니라 관리유지면에서도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재료의 선정과 사용도 마찬가지이다. 예산은 적다고 하면서도 “누구네 집에 좋은 재료를 썼으니 나도 쓰겠다.”는 식의 건축욕구가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좋은 뜻의 격언을 잠시 잊게 하고 있다. 결국 자재의 선호경향은 예산이 더 소요되는 쪽으로 결정되는 것이 상례이다.

재료의 적재적소는 생활의 지혜에 속하며 건축주 가족의 교양과 格의 표현과도 상관된다. 아꼴만하고 자랑스러운 공간을 마련한 집주인은 변화있고 실속있는 생활을 추구할 줄 아는 값진 생활의 창조자가 되는 것이다.

良質의 주택은 크고 호화스러운 주택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욕구나 생각을 다 반영시키지 않아도 그 나라 그 사회의 수준에 걸맞으면서 아무 불편이 없는 집, 우리의 관습과 생활양식들이 살아 숨쉬는 그런 평범한 집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주택이 아닐는지.